

보도설명자료 (‘12. 2. 2)

수신 : 지식경제부, 국토해양부 등록기자

제목 : ‘차 등록증 연비·창문라벨 연비 정부내 기싸움에
다르게 표시’ 보도에 대한 설명(조선일보, ‘12. 2. 2)

1. 기사내용

- 라벨 연비표시와 등록증 연비표시 방법이 달라 업체들이 혼선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조만간 두 부처가 만나서 제도정리 필요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 입장

-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는 자동차 관련협회의 요청으로 라벨 연비 표시와 등록증 연비표시 방법을 일치시키기로 기합의(2.1일) 하였음
- 소비자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연비측정 방법에 대해 공동으로 고시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하였음

※ 자료문의: 지식경제부 에너지절약협력과 서가람 과장(2110-3935)
국토해양부 자동차운영과 조무영 과장(2110-8698)
지식경제부 에너지절약협력과 권기만 사무관(2110-3936)
국토해양부 자동차운영과 김용원 사무관(2110-8697)